

Michel Butor

1926년 프랑스 Mons-en-Baroeul에서 출생했다. 1954년 최초의 소설 *Passage de Milan* 발표했다. 1956년 *Emploi du temps* 으로 페미나상을 수상했으며, 1957년 *Modification* 으로 르도르 상을 수상했다.

1968년 이후 Vincennes대학과 Collège Université de Nice에서 문학강의를 했으며 1975년 이후 Genève 대학 문리대 현대 문학 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위의 세 소설 외에 *Degrès*(1960)을 포함한 수십편의 소설과 시 발표했으며 평론으로는 *Répertoire I-IV*(1960-1974), *Histoire extraordinaire*(1961), *Essais sur les Modernes*(1964), *Essais sur les Essais* (1968), *Les mots dans la peinture*(1969) 등이 있다.

누보 로망의 어제와 오늘

미셸 뷔토르

감사합니다. 토론에 앞서 우선 나의 견해를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하여 함께 우리의 주제를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이 대학에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해 보면, 그때는 같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마는, 아주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듯이 말이지요. 내 인상으로는 서울은 모든 것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60년대 말에는 누보 로망이란 아직은 아주 새로운 어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 이제 이미 누보 로망은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제기하려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즉, 새로운 소설, 누보 로망이라 불리는 것 속에 새로운 어떤 것이 아직도 남아 있는가? 또 이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이라는 단어는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는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새로움이든 거짓 새로움이든 말입니다. 전 세대와의 관련 하에 우리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의 다른 분야들과도 연관시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현대 사회에서는 여전히 거의 연구되지 않고 있는, 그러나 매우 매력있는 중요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유행이라는 현상입니다.

유행이란 무엇보다 우선 복장의 분야에서 드러납니다. 두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유행에 맞춘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의상과 거의 같은 것을 입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가 유행에 맞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그 사람을 지나가 버린 과거에 속한다고 느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유행에 맞추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볼 때 두드러진다는, 앞서가고 있다는 인상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유행

을 만들어 내는 사람은 특별히 눈에 띄입니다. 알다시피 이 점은 우리의 행동양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행을 만들고 유행에 앞서 가기 위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움들이란 가끔은 진정한 새로움들이기도 하지만, 간혹 그와는 달리, 다시 돌아온, 그러나 관례적인 의복과 비교해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는 지난날의 유행들이일 수도 있습니다. 한 세대를 다른 세대와 구별해 정의하기 위해서도 '새로움'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전통사회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은 나이든 사람들을 본받아야 했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젊은이들은 그들보다 앞선 세대와 구별되어야 하며, 그들의 부모와 다르게 보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마치 그들의 부모가 그들 자신의 부모와 구별될 방법을 찾아야 했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의복의 유행은 세대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움이란 어떤 분야에서든지, 인성의 정의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괴테가 파우스트의 프롤로그 첫머리에서 말했듯이 말입니다. 네르발이 번역한 불어로는 "우리에게 새로움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세상에 더이상 없다 할지라도." 로 되어 있지요. 어쨌거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진정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해도, 유행이 지난 것을 다시 유행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새로운 것은 정말로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이라는 이 단어는 그 자체의 움직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 새로운 것으로 이름붙여졌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은 것이 되고, 그에 따라 또 다른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3,40년전 프랑스에서는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아주 유행했었습니다. 몇가지 움직임들이 이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로 정의되었지요. 예를 들어 '누보 로망'이니, '누벨 크리티끄(새로운 비평)', 영화에서는 '누벨 바그', 혹은 '누벨 퀴진느'(새로운 요리법)등등의 말을 썼습니다. 어떤 시기에 있어 '새로운'이라는 단어는 무슨 분야에서서나 진급을 허락해주는 일종의 주문같은 것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몇년이 지나자 자연히 다른 것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몇년 후에는 '새로운'이라는 말이 더이상 새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학회나 유행의 내부에서 통용되고 있는 몇가지 형용사나 접두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동안은 '앙띠'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앙띠 로망'이라고들 말했는

데, 샤프트르가 나탈리 샤프트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녀가 앙띠 로 망을 쓰고 있다고 말했지요. 회화에 있어서는 한동안, 마르셀 뒤샹이 '앙띠 뽕튀르(반 회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들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앙띠라는 말로 나타내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회화에 반대되는 어떤 것, 소설에 반대되는 어떤 것, 시에 반대되는 어떤 것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 말도 더 이상 효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회화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믿고있던 것이 결국 회화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차렸기 때문이지요. 마르셀 뒤샹의 작품은 회화사의 일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탈리 샤프트르의 소설도 소설사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깨닫게 되자 사람들은 " 앙띠라는 단어로는 충분하지 않아. 다른 말을 써야겠어."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이라는 단어로 되돌아온 것이지요.

다른 방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끔 쓰이는 접두사 '네오'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앵프레시오니스트(인상파)'가 있었고, '네오 앵프레시오니스트(후기 인상파)'가 있었지요. '네오'라는 말은 '다시 전면에 대두한, 그러나 변화를 웅당 수반하고 있는 어떤 것'을 특별히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어느 정도 유행하고 있는 접두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미 지나가고 있는 중이지요. 바로 '포스트'라는 접두사인데, '포스트-모데른'이라는 말들이 쓰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것에 이 '포스트'라는 접두사를 붙입니다. 우리에게 '포스트'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뜻은 불어로 '이후'이지요. 오늘날 가장 긴급한 일은 '포스트' 이후에는 무엇이 올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후'라는 말을 이것 이후, 저것 이후, 즉 누보 이후, 포스트 이후라는 경우에 쓰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여전히 무언가 다른 것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50년대에 몇몇 작품들이 비평계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누보 로망에 대한 말들을 했습니다. 특히 저널리즘 문학 비평은 작품들을 분류하는 습관이 있고, 또 그것들을 재빨리 평가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책이 나타나면, 그것이 어떤 장르에 속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실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신문에서 누가 그것을 맡아 이야기할 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희곡을 전문으로 다루는 저널리스트가 있고, 에세이 전문이 있고,

시 전문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책을 건네줄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 책을 어떤 틀에 넣을지 빠른 시간내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쉽게 분류상자에 들어가지 않는 책들이 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르중의 하나는 소설입니다. 그러나 소설 내부에도 역시 몇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몇가지 장르, 하위 장르라는 말이 좋으시다면 이말을 씁시다. 우리가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종류의 소설들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용도로 소용이 되는 것들이지요. 예를 들어 추리 소설은 책표지에 의해 즉각 알 수 있고, 내용을 볼 때도 즉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추리 소설은 아주 분명한 몇가지 규칙을 따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의 공격성을 억제해야 했던 날 밤, 잠을 청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관공서나 대학에서의 일이 언제나 순조로운 것은 아니니까요. 가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사라졌으면 하고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첫째 우리는 그들을 없애버릴 수 없고, 게다가 그들이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둘째 우리는 그들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우리는 살인자가 등장하는 이야기책을 읽으면서 아주 즐거워하는 것이죠. 책은 우리를 위해 누군가를 사라지게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도덕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 이야기에 것처럼 큰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에 어느 정도 겸연쩍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살인의 죄인은 탐정이든, 경찰이든 간에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탐정이니 경찰은 일단 살인자가 그다지 호감이 가지않는 인물을 없애고 나면 그 살인자를 처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혹 반대가 없으시다면 본론을 잠시 밀어둡시다. 우리는 다음날까지 편안히 잠을 잘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이 순환주기는 아주 빈번합니다만, 탐정소설은 아주 많고, 또 수많은 탐정 소설이 출판됩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소설장르이며, 보시다시피 극히 엄격한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아마 주목할만한 책이 된다 하더라도 탐정소설은 더 이상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방식으로 그책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수의 하위 소설 장르들을 꼽을 수 있겠는데, 탐정소설, 공상 과학소설, 병상 체험소설, 애정 소설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애정 소설에서

는 가난하지만 칭찬받을 만한 아가씨가 꽤 유력한 매력있는 남성을 만나고, 이 남성이 마침내 그 아가씨와 결혼하게 됨으로써 이야기가 이어지곤 하지요. 또한 말하자면 다소 크고 작은 문학적 가치를 부여 받는 소설들이 있습니다. 조금전 이야기한 탐정소설, SF소설, 의료소설, 애정소설들은 일반적으로 대중적이고 상당히 통속적이라고까지 여겨지고 있습니다. 소설을 분류하는 또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적인 전통 심리소설, 혹은 영국적인 전통 심리소설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곧 알게될 것입니다. 즉시 알 수 있고, 따라서 읽기 쉬운 소설들은 대체로 이런 소설들이고,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문학상을 받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은 많은 책을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많은 책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책을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학상은 때때로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보수주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때 누보 로망이 이야기되었습니다. 소설이라는 부제를 달고 등장한 몇몇 소설들이 관례적인 분류에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널리스트들은 그 소설들을 어디에 소속시켜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분류에는 추가항목이 있어 보충을 해 줍니다. 분류는 필요하지만 결코 충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분류법이 현실에 실제로 부합하지 않음도 늘 알고있는 바입니다. 그 분류법은 어느 정도는 부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테두리를 벗어나는 요소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류 체계에는 다양한 이름을 가진 보충항목이 언제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디에 두어야 할 지 모르는 것을 놓아둘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년대에는 다양한 상자에, 여러 신문의 편집초고들이겠지만, 이 다양한 분류상자에 무슨 말로 설명해야 좋을지 모를 몇몇 작품들이 쌓였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 지 모를 곤혹스러운 특성을 가진 이 책들, 이것들을 읽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습관대로 하자면 물론 한번 훑어보아 그것으로 충분하겠지만, 이 책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해야 좋을지 몰랐으니까요. 그것들은 점차 쌓여만 갔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이 책들이 몇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되기 시작했으며, 그것들을 함께 묶어 이야기할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누보 로망'이라는 명칭은 이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이름은 작가 자신들이 붙인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의 한 잡지, 몇몇 소설가를 위해 특별호를 찍어낸 '에스프리'지에 의해 붙여진 것

입니다. 누보 로망에 대한 특별호를 낸 이 잡지는 얼마 후 '누벨 뮤지끄(새로운 음악)'라는 제목의 특별호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누벨 뮤지끄라는 표현은 누보 로망이라는 표현만큼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책들을 함께 묶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서로서로 동일시하려는 유혹을 느꼈습니다. 서로 비슷한 책들이었고, 새로운 유파 혹은 새로운 그룹을 형성한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 작가들에게 어째서 그들은 것처럼 상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것인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작업에 대한 이론적 정리 작업이 시작된 것이고, 그것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때 일어났던 그 일을 시간적인 거리 덕분에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 그 즉시로 이야기하기란 어려운 일이니깐요. 정의상, 새로운 것이란 그것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 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혹은 이말이 더 마음에 들지도 모르겠는데, 새로운 습관을 들이거나, 몇가지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 책들, 나탈리 싸르트, 로베르 뱅제, 끌로드 올리에, 알랭 로브그리에, 끌로드 시몽, 그리고 몇몇 다른 작가들의 책들은 몇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책들은 우선 어디에 분류해 놓아야 할지 모를 책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누보 로망'이라는 이 새로운 분류항목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둘째로 이 책들은 독서에 있어서 꾸준한 집중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놀라운 것은 꾸준한 집중을 요구하는 이 책들이 외견상 중요한 문제들이나, 현재의 긴급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싸르트르의 책들을 보면, 그의 소설들은 꾸준히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일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현대의 가장 긴급한 주제들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까."라고 합니다. 전쟁, 노동계층의 문제, 파업등이 그가 이야기거리로 삼는 주제들입니다. 반면, 이 누보 로망 작가들의 책을 펼치게 되면 그 묘사의 풍부함에 놀라게 됩니다. 그것도 친숙한 사물들에 대해 넘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째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예를 들어 문 손잡이를 묘사하려 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나는 그렇게 묘사된 바와 같은 그런 문 손잡이는 필요치 않아. 나는 문 손잡이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 나는 문 손잡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있다구. 내 시간을 허

비하게 하지 말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책들 속에는 무언가 매력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친숙한 대상들을 묘사하는 데 것처럼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당연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믿는 사물들을 사실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딸랑의 사진이 우리주변의 일상적인 것에 대한 전혀 새로운 면모들을 드러내보이듯이 말입니다.

누보 로망 작가들은 일상적 사물들 속에서 이제껏 보지 못해 왔던 면을 드러내줍니다. 본인은 이 시기의 소설이 사진과 맺고 있는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들 속에는 시각적 관점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누보 로망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이 작가들 모두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점 중의 하나는, 그들 모두가 지니고 있는 영화에 대한 관심입니다. 영화에 있어서, 또한 일반적으로 영상에 있어서, 현실을 드러내는 방식은 19세기 이래로 놀랄만큼 변했습니다. 오늘날의 성향은 또 다릅니다. 영상의, 심지어는 움직이는 영상의 거대한 덩어리, 그것이 영화입니다. 이 점은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때 누보 로망은 분명 회화나 특히 사진, 영화와 경쟁하려 했습니다. 모든 텍스트들이란 그 내부에서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문제들에 흥미가 없어서가 물론 아닙니다. 몇몇 작가만을 볼 때, 누보 로망은 사회 전체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는 유혹을 느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가에게 있어서,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정확히 말해 현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해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들은 그것들이 잘못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동일한 용어로 제기하는 한, 그것들은 해결 불가능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을 당장에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단지 재앙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매일 발행되는 신문들이 알려주는 바와 같이 우리는 연속적인 재앙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물들을 한층 더 깊이있게 포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어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이 불가피한 것이지요. 또한 언어를 변화시키는 일은 당연한 것이지만, 가장 단순한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제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일상적 삶의 자리이니까요. 이런 까닭에 누보 로망 작가들은 사회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발언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사회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회로를 택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를 들어 대상의 묘사같은 것 말입니다. 어떠한 사물이든 그것은 사회적 문제를 전부 담아서 보여줍니다. 하나의 식귀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이 식귀는 현재의 내부에서 그것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회의 역사속에 놓여있는, 그리고 총체적 역사 내부에 놓여진 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식귀들은 언제나 현실을 추방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사회 역사 속에는 이러한 종류의 사물들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야,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줄 그릇들이 식귀라는 이 투명한 질료가 됩니다. 형태는 그 자신의 온전한 역사가 있습니다. 질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 사물은 제작된 것입니다. 이 사물을 매개로 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온전한 사회조직이 있습니다. 이 사물은 공장에서 노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언제나 대단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뒤 곧 그것은 상점에 놓여집니다. 그것은 팔리거나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이 단순한 사물에서부터 우리는 조금씩 더 발전된 방식으로 사회를 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러한 발전을 공들여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숨겨진 사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가려져 있는 많은 사물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히 아주 속도가 느린 과정이어서,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 조금해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탐색이 깊이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점점 더 확실히 깨닫고 있는 점은, 단지 깊이있는 탐색만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들을 조금씩 헤쳐나가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보 로망의 몇가지 특징을 살펴봅시다. 그 작가들은 서로 서로 아주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몇가지 근본적인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소설에 그들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60년대부터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보 로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던 서로 다른 작가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개성 때문이었지요. 처음에는 이 작가들을 한데 묶어서 이야기 하곤 했고, 한 작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했던 말을 빌려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많은 오해가 생겼었지요. 점차 비평계는 이 상황을 규명해 냈고, 그래서 이작가들 각자를 분리해서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한때 서로 만났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오늘날은 이 작가들을 각각 분리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 관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닌 서로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들이 점점 더 명확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더이상 누보 로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보 로망은 50년대에 시작해서 60년대 초에는 끝나버렸습니다. 누보 로망 작가들은 그들의 글쓰기를 계속하고 있고,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흥미를 느꼈던 장르를 확대시켜 온 몇몇 특별한 작가들도 있고, 또 몇몇 누보 로망 작가들은 그들이 그 당시에 했던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끝에 쉬워진 것이지요. 예를 들어 끌로드 시몽의 책들에 대해서 곧잘 이야기하곤 하는데, 그는 일종의 소설적 총체인 작품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총체는 물론 새롭게 변화하고 있으나, 동일한 주제, 동일한 인물을 다시 채택하면서 잘 정의된 몇몇 규칙의 내부에서 변화합니다. 그것은 결코 소설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작가들은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만을 써오던 나탈리 사로트는, 언젠부터인가 극형식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라디오 극을 썼었지요. 나탈리 사로트의 소설에서는 대화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그녀는 눈, 즉 독서를 위한 대화가 아닌, 귀, 즉 라디오 청취를 위한 대화를 쓰기 시작했고, 차츰 연극을 위해 글을 썼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다양화되었지요. 한편 알랭-로브그리에는 아시다시피 영화를 위해 글을 썼고, 그 자신이 직접 연출가가 되었습니다. 다른 작가들과는 다른 모험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 본인은 모든 장르의 책을 썼습니다. 1960년부터 책의 겉표지에 소설이라는 부제를 결코 달지 않았지요. 나는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그것은 예전에 소설이라고 불렀던 그런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누보 로망도 더 이상 아닙니다.

누보 로망의 계승 노력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장 리카르두라는 작가와 그 주변에서인데, 그는 의미론적 시각에서 보면 흥미로운

것이기도 한데, 그 자신이 '누보 누보 로망'이라고 이름붙인 것을 시도해왔습니다. 누보 누보 로망이란 말하자면 누보 로망이지만, 예전 누보 로망에 비교해 볼 때, 몇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누보 로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세기 프랑스 문학계에는 중요한 잡지 하나가 있는데 『누벨 르뷔 프랑세즈』로, 이 잡지명은 상당한 중요성을 획득했습니다. 이 『누벨 르뷔 프랑세즈』는 20세기 2/4분기의 프랑스 문학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점령기 동안의 이 잡지의 행적으로, 대전 말기 파리수복기에 이 잡지는 대독 협력출판물로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때 『누벨 르뷔 프랑세즈』를 진정한 『누벨 르뷔 프랑세즈』로 고쳐 만드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40년대 말에서 50년대 초, 이 잡지가 다시 나타났을 때, 진정한 『누벨 르뷔 프랑세즈』는 『누벨 누벨 르뷔 프랑세즈』로 불렸습니다. 분명 사람들은 이 『누벨 누벨 르뷔 프랑세즈』라는 이름을 붙여 잡지를 내면서 재미있어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다른 형용사를 찾을 때까지 무한정 이렇게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니 '누보 누보 로망'이란 표현에는 물론 유머러스한 어떤 것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떤 다른 진지한 속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형용사 '누보'에 의해 표현되는 것과는 다른 어떤 차별성을 찾아야합니다. 즉, 새로운 것과 관련해 볼 때도 새로운 어떤 것을 찾아야하는 것이지요.

60년대 이래로 프랑스 문학에는 새로운 것이, 아주 흥미로운 새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최근 30년간의 프랑스 문학의 파노라마를 펼쳐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단지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끝마치려고 합니다.: 누보 로망이라고 불리우던 것에서 오늘날 무엇이 남아있는가? 우선 지금까지 작품을 계속 써온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여전히 열정적이고, 발전하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작가들이 이미 쓴 작품과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지금 대단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로베르 뱅계의 최근 작품들은 아주 현저한 원숙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작가들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점에는 아무 의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보 로망이 앞자리를 차지한 결과, 예전의 소설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많은 작품이 '소설'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것

들은 이전 소설들 말하자면 누보 로망 이전 소설들의 공식을 따르고 있는 것들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작가들은 누보 로망 시대에 서조차 온갖 글쓰기 방식을 사용했으며, 내가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은 것까지 장르의 소설들을 계속 써 왔습니다. 많은 소설들이 프랑스의 전통 혹은 19세기의 전통을 이어받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계속되고 있고, 또 그리 오래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 한동안은 계속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설이 행하는, 특히 금세기 초부터 대중소설이 행해 온 몇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이지요. 현재 영화와 텔레비전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심도있는 방향 전환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형태의 소설을 대량으로 출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누보 로망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보 로망은 상당한 동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젊은 작가들에게 있어 제기되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 조금 연구하다 보면 누보 로망의 영향이 아주 결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야기한 바의 누보 로망은 지나간 과거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 과거는 오늘날도 생생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이 과거는 금세기 말까지 점점 더 큰 활약을 할 것입니다. 그 작가들의 책은, 그 당시의 책들까지도, 그 당시보다는 더 많은 주목과 이해를 받으며 읽혀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때보다는 이 책들을 더 많이 읽고, 그것들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것들은 더 큰 영향을 남고 있지만, 비록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자 해도, 그것은 그때 만큼의 유행의 힘은 더이상 지니지 못합니다. 그때의 책들을 오늘날 누보 로망의 고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프랑스 문학의 토대를 이루는 한 부분인 것이지요. 프랑스 문학의 모든 문학사 책에는 누보 로망에 바쳐진 하나의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다른 장들도 이 작가들 각각에게, 그들의 책에 바쳐질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아주 활기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누보 로망 시대에 시작되어 아직 끝나지않은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누보 로망이 진정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깊이있게 평가받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원하던 바입니다. 여러분도 보셨듯이, 누보 로망의

특징은 그것이 어떤 현실문제에 대하여 취하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감은 사실 새로운 유행을 낳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현실에 대해 취하는 거리는 그것의 독서와 보급을 느리게 합니다. 누보 로망 작품들을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누보 로망이 근본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사물들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자는 것이니까요. 사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걸음 물러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물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걸음 물러서야 하듯이, 누보 로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또한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들이 작용하는 방식에는 어떤 유형의 새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누보 로망에 있어서 더욱 새로운 것은 오늘날 그 소설을 읽는 방식입니다. 그때보다 오늘날 그것을 더 많이 읽는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그것이 많은 젊은 작가에게 끼친 영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보 로망 작가들이 그 이후로 추구해 온 다른 것들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이 사물들을 더욱 잘 위치시키도록 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누보 로망의 직접적인 결과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누보 로망작가들이 후계자를 가졌다고도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오기를, 오늘날까지도 누보 로망 스타일로 글을 쓰는 작가들이 아직 있습니까? 라는 것인데,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질문이 못됩니다. 누보 로망 스타일로 글을 쓰는 작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보 로망 스타일이란 그 무렵 몇몇 작가들 작품에 공통적이었던 몇가지 특징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작가들 그 자신도 그들의 스타일을 그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오늘날 누보 로망 스타일로 글을 쓰는 젊은 작가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오늘날 프랑스에서 흥미를 끄는 젊은 작가들 중에 누보 로망의 경험이 결정적이지 않은 작가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누보 로망은 오늘날 이 작가들을 도와, 그때와는 다른 어떤 것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히 무엇이 진정으로 새롭고 무엇이 진정으로 다른 것인가하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 질문은 어지러운 탐색의 결과로 차이점과 유사점을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이 최근 작품들의 독서와 보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느리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치 누보 로망 작품들의 활약이 느렸던 것처럼, 과거의 모든 위대한 작품들의 활약이 느리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호머라는 서양 문학의 시조에 대해 계속 질문을 던

지고 있습니다. 호머는 언제나 새로우며, 그의 문학에는 매번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이 작가, 서양문학의 신화와도 같은 이 최초의 작가를 매번 다른 방식으로 읽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내 생각에는 한국의 현대 작가들도 이전 한국작가들을 새롭게 읽는 방식을 발견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발견은 그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보여줄 것입니다. 누보 로망 작가들은 과거의 소설에 대해 전혀 다른 질문들을 제기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누보 로망 작가들 때문에 발작을 다른 방식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점차 누보 로망작가들까지 새로운 방식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중요성을 점점 더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니 아시는 바와 같이, 누보 로망은 낡은 것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30년전, 25년전 혹은 30년전에 끝나버린 것이지만, 누보 로망은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누보 로망은 언제나 새로운, 전적으로 새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거쳐간 작가들은 종종 더욱 더 흥미로운, 더욱 더 새로운 것을 이루어내고 있으니까요. 이것으로 나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대답으로 넘어갑시다.

<임미경 역>